

100년 전통 이을 전남지역 ‘백년가게’ 추가 선정

대한식당·전주식당·호남종묘사·에펠제화 등 4곳
중기지방청, 30년 이상 제품·서비스 차별화 평가

100년 전통을 이을 전남지역의 ‘백년가게’ 4곳이 추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19년 백년가게 육성사업’ 2차 사업에 전남지역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말 3개 업체를 1차 선정했는데 이어 이번에 대한식당(광양시), 전주식당(합평군), 호남종묘사(강진군), 에펠제화(장흥군) 등 4개 업체를 추가 선정

해 우리지역 백년가게는 12개가 됐다. 광양식 불고기 전문점인 대한식당은 ‘음식은 나눔의 배려이며, 기본에 충실해야’는 시어머니의 경영철학을 계승해 2대째 운영 중이다. 광양 참숯 불고기 맛의 비법은 양념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신념으로 수년에 걸쳐 자체 양념비법을 개발해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고 있다. 생고기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주식당은 2대째 내려오는 특유의

양념장, 육수, 국산 고춧가루, 숙성젓갈 등으로 직접 담근 김치를 41년째 손님 상에 내놓고 있다. 당일 매입 당일 판매 원칙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전주식당은 한방약재를 넣어 삶은 돈뺨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농업용품을 판매하는 호남종묘사는 35년간 한우몰 경영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맞춤형 상품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다. 맞춤형 농약관리 서비스를 통해 돌발성 병해충 관리 및 추적 관리로 경쟁업체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수제화를 제작하는 에펠제화는 장흥군 내에서 31년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일정 기한이 지난 재고품은 전량 폐기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 주 고객층의 충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온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 30년 이상된 소상공인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고 웹사이트, 한국관광공사, 언론매체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홍보해 매출 향상을 돕는다. 또 30년을 넘어 10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하고, 정책자금 금리도 0.4%p 우대한다. 중기지방청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백년가게를 방문해 우리지역의 전통의 맛과 향수를 느끼기 바란다”며 “백년가게가 우리지역의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선정된 백년가게는 백년가게 홈페이지(100year.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백년가게 선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1월말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후성기자



●투데이 경제

광주은행, 결식우려 아동 도시락 후원
광주은행은 23일 광주 북구청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북구 지역 아동 40명에게 영양 도시락을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문인광주 북구청장이 참석했으며, 아동 2명을 초대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수제 도시락과 영양제, 학용품, 인형 등을 선물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종욱 은행장은 “우리 지역 미래의 꿈이며 내일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담아 도시락 후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아시아나, 자카르타서 ‘색동나라교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색동나라교실’을 열어 재학생 300여명에게 항공산업에 대한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색동나라교실’은 정비사, 공항 직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기부봉사단’이 항공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직업 강연을 펼치는 활동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중국 상하이로 시작으로 베트남 호찌민, 일본 동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로 영역을 확대해 재외 한인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해외 색동나라교실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첫 개최됐다. /임후성기자

에어서울, 하반기 캐빈승무원 채용

에어서울은 2019년 하반기 신입 캐빈승무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류전형과 1·2차 면접, 체력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9월 중 입사하게 된다. 채용 규모는 약 50명이다. 지원 자격은 학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국내 정기 영어시험 성적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서에는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 정보는 물론 가족정보, 결혼여부, 증명사진 등의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며, 에어서울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서울 채용 사이트(http://recruit.flyair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후성기자

“농협 팜스테이 마을서 휴가 즐기세요”

전남농협,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농협나주시지부는 23일 나주역사 안에서 여름철 휴가객들을 대상으로 여름나기용 부채와 농협 팜스테이 마을 소개책자를 증정하며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농협은 해마다 늘어나는 여름철 해외 휴가객들이 농촌마을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전남 관내 농협 팜스테이 마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동시에 휴가객들이 팜스테이 마을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쉬다갈 수 있도록 마을 청소 및 정비 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여름휴가철을 맞

아 농촌마을에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통해 진정한 힐링의 시간도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팜스테이란 농장을 뜻하는 영어단어인 ‘팜(farm)’과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stay)’를 합성한 말로 농가에서 숙박하면서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는 농촌관광을 의미한다. 전남에는 현재 총 28개의 팜스테이 마을이 있으며 팜스테이 마을의 체험활동, 숙박 등의 다양한 체험이 진행 중이다.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사항은 농협 팜스테이 홈페이지(www.farmsta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수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협나주시지부는 23일 나주역에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부채와 농협 팜스테이 마을 소개책자를 나눠주는 등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남농협 제공

65-79세 고령층 10명 중 4명 여전히 일한다

3명 중 1명 단순노무직...농림어업 숙련·서비스종사자 順

65-79세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 중 1명은 단순 노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65-79세 인구 596만명 중 취업자는 40.1%인 23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늘었다. 65-79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

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0%), 서비스·판매종사자(18.2%),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4.1%)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25.3%), 도소매·음식·숙박업(14.6%) 순이었다. 55-64세 인구 788만3천명 중 취업자

는 67.9%인 535만명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비율은 작년과 같았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가 25.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종사자(25.1%), 단순노무종사자(19.3%)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3.6%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22.1%), 제조업(14.0%)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55-79세 인구는 51만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이 96.2%를 차지했다. 55-64세 취업 유경험자 770만5천명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은 64%인 493만4천명이었 다. 그만둔 이들 중 52.3%인 257만9천명은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무 기간은 15년 5.7개월로 1년 전보다 0.8개월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9년 2.2개월로 0.8개월 줄었지만, 여성은 11년 8.1개월로 2.4개월 늘었다. /연합뉴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26년 8.2개월로 가장 길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25년 11.1개월로 가장 길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 평균연령은 49.4세로 1년 전보다 0.3세 올라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1.4세, 여성은 47.6세에 그만뒀다.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업·폐업이 33.0%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19.8%),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3.8%)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둘 다 가장 많았던 사업부진·조업중단·휴업·폐업(남성 39.1%·여성 27.6%)을 제외하면 남성은 권고사직· 명예퇴직·정리해고(18.9%)가, 여성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25.0%)가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오천경매

투자제 관련
모든 상담
010-3605-5000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금매전문

[급히 매매합니다]

○ 유동 상업지 코너 410㎡ 단층 점포 9칸
금매가 7억5,000

○ 월산동 대로변코너 준주거419㎡ 대형
식당 운영중 명도가능 3.3㎡ 당850만원

○ 모텔 : 운암동173㎡ 5층 건물, 승강기, 주차장 있음
금매 4억2,000(용2억7,000 월수익600만원)

○ 운암동 대로변 코너 110㎡ 2층 상가건물
금매 3억 5,000

***광주천변 양측, 운암, 동림동 지역
상가 및 잡종지, 농경지 급구합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경매투자

오천경매
010-3605-5000